경계 합의도 없이 제주시가 먼저 일방적 공유수면 허가

한전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경계 서로 달라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3일 오후 제주시 삼양동 동제주변환소에서 200MW급 동제주~완도 HVDC 제3연계선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HVDC 제3연계선은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시켜 송전하는 기술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1998년 건설된 제주~해남 간 제1연계선과 2013년 준공된 제주~진도 간 제2연계선은 전류형 HVDC인 반면 이번에 착공한 제3연계선은 제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완도로 보낼 수 있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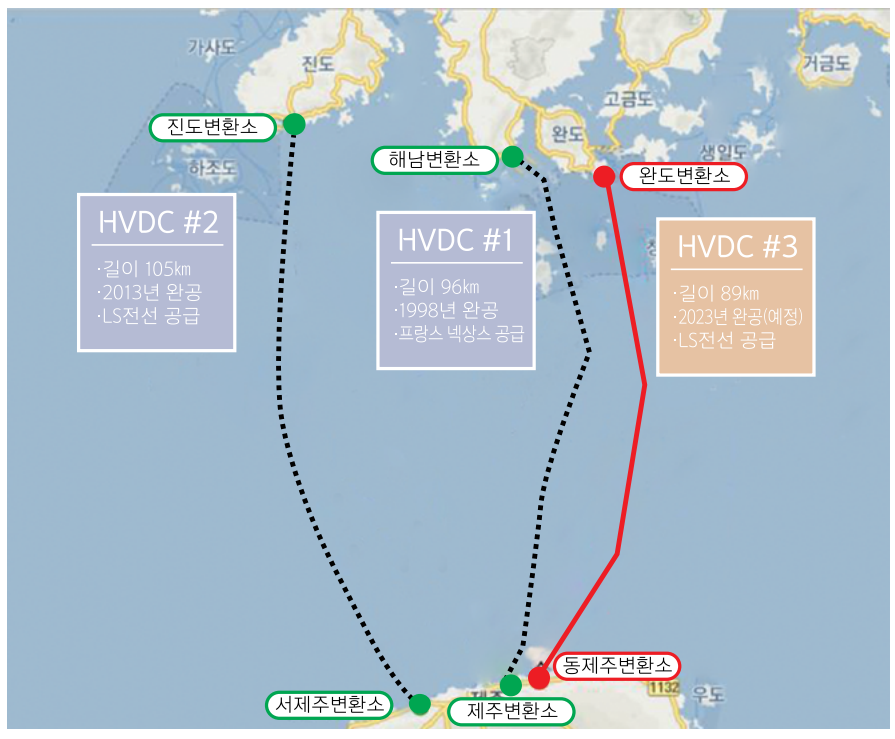
제3연계선 건설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한전이 완도군과 제주시로부터 해당 지자체 지선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한전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에 대해 지난 3월 18일자로 제주~완도 간 해저케이블 설치 및 관리를 목적으로 제주시 삼양동 지선 43,341㎡ 면적에 대해 30년 간 허가(2022-05)를 내줬다.

그런데 문제는 완도군과 제주시가 제3연계선 총 길이 89킬로미터 공유수면 면적 산정을 위한 경계점을 논의조차 못한 상태에서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준 것이다.

완도군과 제주시의 공유수면 경계점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다. 1월 20일자 본지 기사 내용처럼, 완도군은, 처음 두 기관의 합의사항이었다가 나중에 제주시가 입장을 바꾼, 바다의 절반씩 허가(39.389㎞)를 내주자는 주장인 반면, 제주시는 제1연계선과 제2연계선 경계와 똑같이 적용해 이미 점사용허가(49.457㎞)를 내준 것이다. 이번에 정한 경계가 앞으로 제주와 완도 간 경계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완도군 해양정책과 김은정 주무관은 "한전이 완도군과 제주시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이 각각 서로 달랐다. 완도군에는 ½ 길이(면적)에 대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제주시에는 구 경계대로 허가를 신청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변환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강했던 당시 완도 주민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고 김 주무관은 밝혔다.

완도군이 한전의 신청대로 점사용 허가를 내준다면 일부 구간은 겹치게 된다. 이에 대해 완도군 해양자원팀 김봉현 팀장은 "문제가 있는데도 한전의 신청대로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 한전이 신청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완도 해역에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고 2023년 12월 예정대로 완공을 위해서는 완도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한전의 허가 신청의 변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제주시가 이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구 경계를 기준으로 먼저 내준 이상 완도군이 끌려가듯 나중에 제주가 정한 경계에 따라 허가를 내주는 것도 잘못이다. 미래에 더욱 중요해지는 자원, 레저, 어장 등 개발의 가치를 고려할 때 너무 쉽게 해양 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김은정 주무관은 "이번 제주시의 점사용허가에 이번에 정한 경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연계선이 제주시의 일방적인 편익을 위한 사업임에도 보상 등 주민들의 이익은 물론 해양 경계 설정에서조차 손해를 본다면 완도군이 영토 주권 전쟁에서 제주시에 패하는 것이어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허위공문서 작성 주장한 공무원을 고발할 예정

담당 수사관에 대한 조사도 요청

관련 공무원들 녹취록, 증거로 제출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사건 고발인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서 2차례에 걸쳐 자신이 해당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힌 완도군청 당시 감사팀 주무관에 대해 고발장을 곧 접수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관련 공무원 4인에 대한 녹취록을 공인속기사에게 의뢰한 상태이며 피고발인 조사 시점에 정식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고발장에는 2021년 6월 9일자 자체 조사결과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를 존재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한 담당수사관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당시 6월 9일자 조사 경위는 정식 감사가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정 아무개 담당관에 대한 조사 요청도 포함되어 있다. 그 증빙으로서 고발인과 정 아무개 담당관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

증거 녹취록은 감사팀 주무관과의 2차례 면담 녹취록, 신 아무개 보건의료원 주무관 취재 녹취록, 정 아무개 담당관과 고발인의 대화 녹취록, 도청 감염병관리과장 및 직원과의 취재 녹취록이다.

고발인은 아울러 허위 공문서를 군정조정위원회와 전라남도에 제출한 행위를 두고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도 향후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인은 당초 지시를 받아 실행한 하위직 공무원은 상대적 약자이므로 그 상급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타당하다고 보아 김 아무개 주무관은 배제한 상태에서 그건 고발을 진행해 왔으나 관련 당사자 그 누구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허위공문서 작성자로서 김 아무개 주무관을 고발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5월 코로나 백신 부정 접종 이후 군청이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감사 과정에서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2021년 8월 고발 이후 지금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경찰 수사→불송치 결정→검사의 보완수사 지시→경찰수사→불송치 결정→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라는 긴 여정을 거쳐 왔으나 당사자들 그 누구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완도경찰 또한 편파 수사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새로 구입한 포트이앙기·파종기 이용하세요!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에서는 농촌의 고령화 대비책, 농업기계화 제고 및 친환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년 농업인이 현장에서 원하는 농업기계를 수요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고, 올해도 새로운 농업 기계인 측조 시비기가 부착된 포트이앙기와 포트파종기를 구입했다.

올해 새로 구입한 포트이앙기 및 포트파종기는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며 포트이앙기로 이앙하게 되면 일반 이앙기보다 활착이 빨라 초기 생육이 왕성하다. 또한 줄기 사이의 공간이 넓어 통풍이 잘되고 햇볕 투과량이 증가해 줄기가 굵고 뿌리가 많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도복과 병충해에 강해 품질 좋은 쌀을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앙하면서 동시에 깊은 물대기를 할 수 있어 잡초 발생 억제에 탁월하고 이앙 직후 왕우렁이에 의한 섭식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친환경 농업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트이앙기 가격은 대당 5,600여만 원으로 일반 이앙기에 비해 2배 이상 비싸 농업인들이 가격 부담 때문에 대부분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전망이다.

임대는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이나 일반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임대 기간은 3일, 대기자가 없을 경우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농업기계는 임차인인 농민이 직접 운반해야 하므로 도서지역 등 원거리 농업인에게는 이용에 한계가 있다.

나무이야기

'완도호랑가시나무'

문정빈(문농약사 대표)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나무가 호랑가시나무와 감탕나무의 자연교잡종인 우리 지역의 특수한 기후가 만든 돌연변이 품종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명으로 명명된 '완도호랑가시나무'이다.

'완도호랑가시나무'(Ilex x wandoensis C.F.Miller&M.Kim)는 1978년 미국인 민병갈(C. F. Miller) 천리포수목원장이 우리 지역에서 발견하고, 전북대 김무열 교수가 한국분류학회에 공식적으로 이 나무를 등록하여, 미국호랑가시학회에 소개되어 이르게 된 것이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상록교목이며, 높이는 5~8m까지 자란다. 나무껍질은 회백색이고 껍질눈이 약간 있다. 잎은 어긋나기하고 달걀형이다. 꽃은 4~5월에 잎겨드랑이에 황록색으로 피며, 암수딴그루이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호랑이 발톱을 연상할 정도로 거친 가시는 보기가 힘든 대신에 한 가지에서 나온 잎이라도 잎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뾰족하게 생긴 것도 있고, 밋밋하게 생긴 것도 있고, 둥글게 생긴 것도 있어 다양한 잎의 형태를 한 나무에서 감상할 수가 있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 호랑가시나무와 감탕나무가 자연 교잡되어 두 나무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완도호랑가시나무 원종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 최창호박사는 완도호랑가시나무를 5품종으로 나누어 '민병갈' '싸운전드 선셋' '모닝 콤' '페리스 드림' '천리포'등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중이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엽형이 특이하고 열매의 모양과 색깔이 관상가치가 높아 난 · 온대지방의 대표적인 조경수로 식재될 수 있고, 크리스마스트리 등 호랑가시나무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미국의 조경수목 시장에 대한 수출 가능성도 매우 높은 나무이다.

완도의 지리적 환경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에서 만들어지고, 명명 되어진 완도호랑가시나무는 우리지역민이 보전하고 육성해야할 자랑스런 유전자원이다.

6차산업이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있다. 우리지역은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전복 · 황칠나무 · 동백나무 등의 서식지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상품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타 인근 지역에서도 진출이 점증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우리지역명이 들어간 희귀종이다. 타지역이 제품화 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우리지역만의 잇점이 있다. 역점을 두고 연구와 개발을 한다면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 본다.